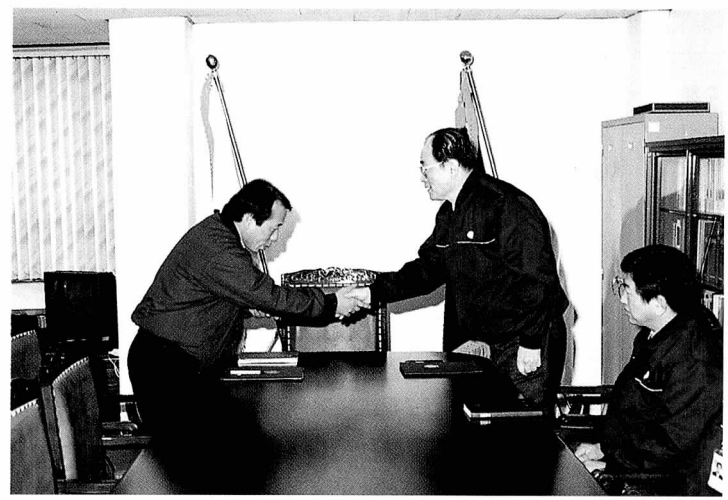


안산지역 산재감소를 위한 오찬간담회 실시



안전협회 안산지회는 관내 사업장의 안전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하여 “산재감소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흥지 회장을 비롯하여 안산지방노동사무소 박정구 소장이 참석하여 “노동부 산업안전 정책방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어 안전기술국 윤경채 국장은 지역내 재해분석 및 협회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소개를 하였다.

안전협회 자체검사팀 반도공영(주)와 기술제휴



안전협회는 크레인 전문 제작수리업체인 반도공영(주)과 2월 23일 협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 사업과 관련하여 크레인 유지·보수에 대해 기술제휴를 체결하였다.

이로 인하여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자체검사 사업장 중 수리·보수가 요구되는 사업장에 대해 요청시 반도공영(주)에서 저렴한 가격에 크레인 수리·보수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주)태준제약 용인공장 무재해 5배 달성



중소기업으로 초우량 사업장과 노·사우량 기업으로 정부로부터 평가받은 바가 있는 (주)태준제약 용인공장은 사업장 재해추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무재해 5배라는 금자탑을 세우고, 지난 2월 7일 무재해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실직근로자 채용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 지원

노동부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해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30세 이하의 실직자, 구직신청후 6개월이 경과된 실직자,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직접 연결되었을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30세 이하의 실직자를 인턴으로 채용시는 채용자 1인당 월 5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고, 3개월이 경과후 정규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분(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구직신청후 6개월이 경과된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하고, 고용조정으로 실직된 근로자를 1년이상 상용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채용자 임금의 1/2을 6개월간 지원한다. 아울러 고령자를 피보험자(55세-60세)로 채용시 월 25만원을 6개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직자를 고용시는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고용안전센터 고용안전팀에 문의)

위험상황 신고 대표전화 『1588-3088』운영

노동부는 2001년 1월 20일부터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운영중인 『위험상황신고실』의 신고전화번호를 『1588-3088』로 통일하여 운영한다.

『위험상황신고실』은 건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 대형사고 발생 징후를 근로자 및 사업장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신고 받아 사고발생 위험을 신속히 제거하기 위해 안전점검 등 재해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1588-3088』은 연결 시 전국 46개 지방관서 중 발신지와 가장 가까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과에 착신된다.

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개정

노동부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을 개정 발표하였다. 이번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일부 명칭을 정리하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을 구체화·현실화하여 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발파작업시 낙뢰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한 낙뢰위험경보기의 구입·설치비와 근로자가 보호구를 지참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안전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항목을 확대하였다. 또한 새로이 기술지도 대상이 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150억원미만 공사에 대한 지도대가 및 지도횟수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체계를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였다.

〈기술지도 대가 및 횟수 기준〉

공사금액	구분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40억원 미만		1회당 142,000원	공사기간 중 월 1회
40 ~ 100억원 미만		1회당 186,000원	
100 ~ 150억원 미만		1회당 224,000원	

산재 근로자 가정에 대한 장학제도 확대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재해 근로자 본인 및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사망근로자 자녀에 대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급 및 대학학자금 대부를 실시한다.

중·고등학교 장학생 선발을 위해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도 자녀 수에 관계 없이 실제 납부하는 학자금 범위 내에서 1인당 200만원까지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금리는 재학기관 중에는 연1%, 상환기간에는 연5%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2001년도 부터는 1세대 2자녀 제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산재근로자 자녀 모두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다. (문의 02-6700-352, www.welco.or.kr)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안전지원제 열어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지난 2월 28일 국립공원 지리산 노고단에서 국민안전과 국가안녕을 기원하는 “안전지원제” 행사를 가졌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주관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는 기획단 전직원과 안전인들이 참석, 올 한햇동안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기원했다.

이날 이명수 부단장은 “모든 안전은 개인 및 가정에서 비롯되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과정에서 안전의식이 실천 되도록 하기 위해 선도자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편,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향후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의식을 향상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사회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개최할 방침이며, 국민안전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제정

노동부는 사업장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이행과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여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내용을 한 산업안전보건분야 업무지침을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과제로 사업장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제정, 보급키로 하고,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사법처리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에 대한 확인검사를 강화하고,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이 제외돼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될 수 있는 중·소규모 화학공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과 안전관리 기술지원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산업보건역사전시관” 개관

지난 2월 23일에 인류문명과 함께 발전되어온 산업보건의 역사를 인간의 노동과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들(총 55점)을 소장한 “산업보건역사전시관”을 대한산업보건협회 본부에 개관했다.

이번에 개관된 전시관에서는 선사, 고대시대부터 20세기까지를 조명한 서양의 산업보건 역사와 고대시대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의 산업보건 활동을 비롯하여 관련 통계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료로 공개될 이번 전시관은 산업보건분야의 자료들이 거의 정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산업보건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 관련분야 종사자와 후학들에게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